

신천·금호강 수달 보호 나선다

市, 안전펜스·안내판·어도 설치 등 종합대책 마련

천연기념물 수달이 차량사고 등으로 죽는 로드 킬을 예방하기 위해 서식지 주변에 안전펜스가 가설되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내판이 설치된다. 또 민간단체와 시의 협력사업으로 인공 보금자리를 조성, 지속적인 서식을 유도하는 등 집중관리된다.

대구시는 수달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05년 12월부터 1년간 수달의 서식실태 조사를 실시, 신천과 금호강·동화천 등지에 총 16마리의 수달이 살고 있으며 열악한 조건과 위협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각각 추진한다. 시는 대구 지역 최초 수달 발견지점인 수성교 일대를 비롯, 대봉교 새한아파트 및 희망교 상류지역의 로드 킬이 우려됨에 따라 우선 신천동로 수성교 상·하류 200m지점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전펜스를 설치키로 하는 한편, 현지여건에 맞춰 회양목 등 저고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다.

또 서식지로 드러난 지점을 중심으로 하중도나 교각 하단 등에 인공구조물이나 바위·교목뿌리 등 자연형 보금자리를 조성하고, 수성교와 동신교 교각 양방향에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내

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식지별로 1-2명씩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명예감시인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천 어도개선 및 설치사업은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된다. 현재 신천에는 경대보·수성보·대봉보·상동보 등 7개소에 어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금호강에서 신천으로 연결되는 침산보에는 어도가 없어 수달은 물론, 어류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2.2m 높이의 희망보는 어도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생태계 단절이 우려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